

# 민주당 전남 시장·군수 공천경쟁 치열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시장과 군수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천신청자의 면면과 함께 후보가 난립한 선거구에서는 2~3명에 대한 컷 오프와 함께 경선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지 주목된다.

4차 구도인 목포시장 공천은 조요한 목포시의원과 최기동 전 목포시장, 김종식 전 광주시경제부시장,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 등이 겨룬다.

순천시장은 허석 전 한국철도공사장과 조종훈 현 시장이, 화순군수는 이형권 화순농협조합장과 구종곤 현 군수가 각각 2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 후보 면면·'컷 오프' 등 구도 주목

### 전남도당, 조만간 경선 돌입할 예정

여수시장과 나주시장, 신안군수, 합평군수는 5파전으로 2~3명이 컷 오프 탈락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장은 김유화 여수시의원과 권세도 조선대 법과대학 초빙교수, 주철현 현 시장, 권오봉 전 광양시 의원 등이 한파 승부를 겨룬다.

나주시장은 강인규 현 시장과 장현준 나주시의회 부의장, 이상계 나주배원에농협조합장, 정순남 전 전

남도경제부지사, 이용범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 등이 뛰고 있다.

신안군수는 박석배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천경배 민주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김승규 전 기획재정부 국장, 박우량 전 군수, 임흥빈 전 전남도의원 등이 표방을 걸고 있다.

합평군수는 김천희 셋별유치원 원장, 윤한수 전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 김성모 전 합평군변영회장, 박태욱 전 전남도

의원 등이 본 경선 진출을 기다리고 있다.

영암군수는 전동평 현 군수와 김영일 전 전남도의원, 영광군수 선거는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과, 김준성 현 군수, 장성군수 선거는 김수공 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와 윤시석 전 전남도의원 등 각각 양파 대결로 경선구도가 짜였다.

담양군수는 최하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최형식 현 군수, 박근조 전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이 경쟁한다.

구례군수는 왕해진 구례발전포럼 대표와 김순호 전 구례군수 비서실장, 최성현 전 구례부군수, 이창호 전 전남도의원, 고흥군수는 송형곤 전 전남도의원, 김화영 전 고흥경찰서장, 공영민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장재선 고흥군의회 의원이 각각공천을 신청했다.

장흥군수 김현복 장흥군변영회장, 박병동 전 장흥경찰서장, 김성현 군수조재환 전 장흥군청 의사과장, 강진군수는 강진현 현 군수와 이승욱 전 여수부시장, 장경록 전 강진읍장 등이 각각 경선을 신청했다.

해남군수는 이길운 전 해남군의회 의장,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 윤재갑 전 해군 군수사령관,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 등이 뛰고 있다.

진도군수는 이동진 현 군수와 박연수 전 진도군수박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 주선종 진도군의원, 무안군수는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 홍규표 전 무안군 서기관, 김산 전 무안군의회 의장,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 등이 각각 공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틀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도당은 조만간 일부 지역에 컷오프 대상자를 골라 본 경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시스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이병훈 예비후보가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을 맞잡고 있다.

##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이병훈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 "광주 우뚝 세울 것"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이병훈 전 예비후보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겸 경선대책위원장으로 영입, 경선 승리를 위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용섭 후보와 이병훈 위원장은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이 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위원장은 30대 후반 광양군수 시절에는 광양매실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키웠고 전남도 근무 시절에는 고흥주둔센터를 유지하고, 정부합동정사를 광주로 오게 하는 등 광주전남 발전을 이끈 지방행정 전문가이며 노무현 정부 때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을 맡아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닦은 문화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또 "이 위원장과 함께 광주만의 고유함과 전통 문화예술을 상

품화·브랜드화·산업화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와 비방선거의 대결"이라며 "(일부 후보는)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여론조사 선수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흑색선전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광주에서는 세 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하고 세 번의 민주정부에서 발탁·중용된 사람을 비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판하는 것과 다를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비방과 모함으로 광주를 살릴 수 없다"면서 "이 위원장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를 통해 반드시 광주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민과 지지자 1000여명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제에 참여했다.

뉴시스



## 미세먼지 해결에는 여야 없다

전해국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 위원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 "전남 교육예산 5조원 시대 열 것"

### 고석규 예비후보 전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예비후보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낡은 교육의 틀을 깨리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

고 말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선 후보 정책공간 국민성장 교육팀장으로 교육정책을 개발해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전남 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는 우리 교육현장이 갖춰



야 할 과제는 안전과 자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전남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힘있는 교육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전남형

맞춤교육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시민교육, 고교 무상교육 등 무한 책임교육, 전남형 작은학교 강화, 폐교와 유휴교실을 활용한 마을문화교실 운영 등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다섯가지 공약을 뒷받침하는 40여 개의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립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